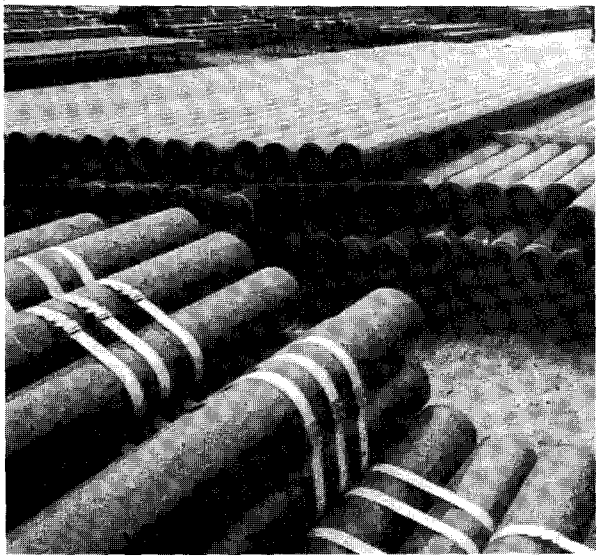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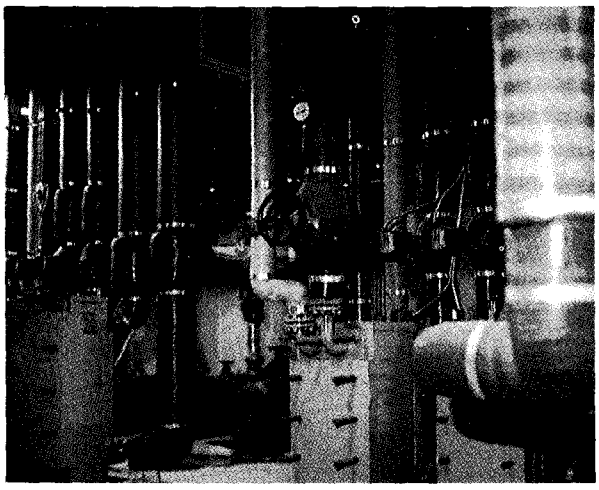
배관재의 수급현황과 전망

설비분야의 배관재는 난방용 배관재와 위생용 배관재 등으로 각별한 구분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수요자들이 필요에 따라 난방용 급수 위생용 등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는 곳이 온돌 용 배관재시장이다.
아연도금 강관이 부식성 문제로 난방용으로 적합치 않다는 보고가 있고서부터 동관과 XL파이프 등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난방용 배관재 시장에서 합성수지관이 50%, 동관이 30%, 기타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성수지관이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국내 배관재의 전체 규모는 연간 1조원 이상이고 그중 설비분야에 사용되어지는 양은 연간 약 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설비분야의 배관재에서 난방용 배관재와 위생용 배관재 등으로 각별한 구분이 지어지지 않는다. 수요자들이 필요에 따라 난방용, 급수 위생용 등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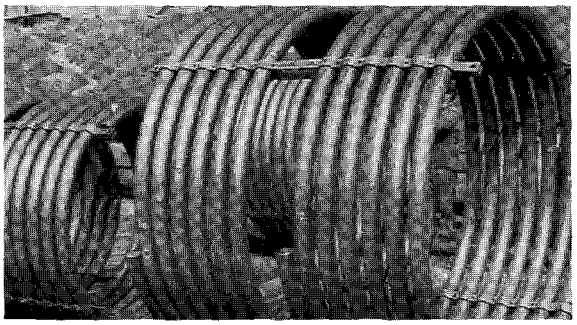
그러나 가장 불꽃 튀는경쟁을 벌이는 곳이 온돌용 배관재시장이다. 아연도금 강관이 부식성 문제로 난방용으로 적합치 않다는 보고가 있고서 부터 동관과 XL파이프 등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난방용 배관재 시장에서 합성수지관이 50%, 동관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성수지관이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합성수지관과 동관과의 싸움은 지난 86년부터 시작되었다. 정부가 「상수도 급수공사 배관용 자재사용에 대한 개선조치」라는 국무총리 훈령 제104호에서 그동안 건축, 상수도용 배관재로 주로 사용해 왔던 철관이 치석, 부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에는 동관, 스테인리스관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를 내림으로써 온돌용 파이프의 재질별 경쟁에 불이 붙었었고, 한동안 동관이 유리한 입장에서 공급량을 늘려 나가서 일부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게다가 지난 2월 분당 아파트 분양을 기점으로 온돌용 파이프 논쟁이 다시 일어나 제2의 온돌용파이프 파동을 낳았었다. 이 싸움의 발단은 분당 신도시 개발 시범 아파트 단지에

건설업자들이 온돌 배관재를 XL파이프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가열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단체까지 들고 일어나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었다.

동파이프 업계는 「건설업계가 성능이 우수한 동관대신 저급자재인 XL파이프를 사용하려 드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공박 했고 합성수지 업체들은 이에 맞서 「국내여건으론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동관을 쓰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난방효과도 좋은 폴리에틸렌관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소비자단체등에 동관 사용을 부추기는 행위는 파이프에 관한 깊은 상식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고 건설업체는 건설업체 대로 「어느 배관재를 쓰든 주택 난방효과는 물론 주택의 질적인 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건설회사의 채산성을 고려, 경제성 있는 자재를 쓸수밖에 없다」고 일축해서 앞으로 파이프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한 셈이 되었다. 사실, 파이프 메이커들이 이처럼 불꽃튀는 공방전을 벌였던 이유가 분당 아파트에 사운을 걸다시피 했었던 것 때문. 9만7천5백 가구가 들어서는 분당은 배관재만 2백 50억~3백억원 규모여서 이 시장도 클 뿐만아니라 뒤이어 건설되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 전체를 합치면 30만 가구가 돼 무려 1천억원의 배관재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분당 신도시에서 파이프 논쟁이 일었던 것은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중에서 분당만이 중·상층 이상 지역이고 뒤이어 개발되는 지역은 서민층 아파트이므로 동관이 가격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치게 되면 뒤이어 건설되는 시장도 놓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 신도시 개발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지역이어서 어느 배관재를 쓰느냐에 따라 앞으로 배관재 시장의 판도가 변화될 것으로 보여져 분당 아파트에 사운을 걸다시피 했었던 것이다.

배관재 시장도 최근들어 첨단소재의 적극적인 개발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스테인리스 주름관과 PP-C PB파이프 등은 기존 제품의 단점인 강도, 경량성, 시공성등을 보완하여 만든 제품들인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이 아직은 미흡하나 주목되고 있어 앞으로 배관재 시장은 신소재의 괄목할 만한 대두가 예상되고 있다.



각 소재별로 분류하면 강관은 지난 89년도 총생산량이 238만5천t(수출 83만8천t, 내수 154만7천t)이었다. 그중 약50% 정도가 설비 배관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89년도 수요는 총 105만4천t(수출 42만2천t, 내수 63만2천t)으로 집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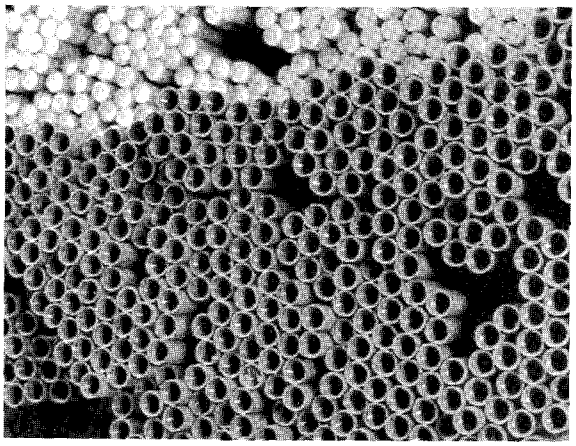
국내 강관 재조업체로는 강관이 40~50여개사와 스테인리스강관이 30여개사가 있다. 강관중 스파이랄 용접강관은 동양철관, 경안실업, 한국주철관, 부산파이프 등 5개사 이고 롤 벤더 강관(Roll Bender)이 동양철관, 현대강관 2개사가 있는데 조만간 1~2개 업체가 생겨날 것으로 보여진다. ERW 방식은 부산파이프, 한국강관, 동부제강, 연합철강, 한국철강이 생산하고 있으며 심레스강관은 삼미특수강이 연간 2만t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 중소업체로는 태양철관, 동원금속, 한양파이프, 한일철강 등 20여개사가 있다.

강관의 전체 생산 능력은 대구경(300㎜이상)이 77만7t, 중소구경이 199만1천t, 특수강관(심레스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이 7만t에 이르고 있어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능력은 원활할 것으로 보여진다. 올 상반기중 강관의 수요가 지난해보다 20%정도 늘어난 48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공급은 65만톤을 웃돌 것으로 전망돼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15㎜규격 백관이 694원(부가세 포함), 흑관 522원등에 거래 되고 있으며 20㎜규격 백관 m당 797원, 흑관 580원등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4월30일 현재)

스테인리스 강관은 연간 2천5백억원 규모의 시장인데 지난 4월부터 부산파이프가 스테인리스 생산에 참여함에 따라 삼미금속, 럭키금속, 성원파이프와 불꽃튀는 경쟁

을 벌이고 있다. 또 올하반기 부터는 현대강관, 한국강관 등도 연산 1만2천t 규모의 스테인리스 강관 공장을 준공할 계획이어서 연말께 가서는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에는 포철의 방계회사인 경안실업



도 스테인리스 강관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어 내년도면 스테인리스 강관 시장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동관은 연간 8만t이 소요되는데 이는 약 2,40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산업용이 5만t, 건축용 3만t이 소요된다. 이중 풍산이 3만t을 공급하고 있고 부영공업등 17개사가 5만t을 공급하고 있다.

정우금속 김영호 전무는 동관의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여 연말쯤이면 국제 동시세의 안정으로 15A 1m당 800원선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의 동관 수요는 작년보다 30%늘어날 것으로 보여졌으나 1/4분기가 지난 4월 현재 약 50% 가까이 늘어나 공급하기에 바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질이 조금 떨어지는 중국산 동괴도 들어오기가 무섭게 팔리고 있다는 것. 김영호 전무는 소비자의 질좋은 자재의 선택을 당부한다.

XL파이프는 지난해 1억6천만M가 생산되었는데 올해의 예상공급량은 62만5천t이고 36만9천t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 심각한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XL파이프의 생산업체로는 50여개사가 넘는데 그중 럭키가 500만M/월, 한양화학이 100만M/월, 미광이 120만M/월, 두리와 대원전선이 각 80만M/월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진광케미칼 등 기타 중소업체에서 40만M/월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방법에서 럭키와 진광케미칼 등이 퍼옥사이드공법(화학가교공법)으로, 한양화학, 대원전선 등이 씰란공법(수가교공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15㎜ M당 럭키의 제품이 4백원(전문점 가격)선에 거래되고있으며 기타 메이커 제품이 3백원에서 4백원 대를 형성하고 있다. 럭키 XL파이프 사업부 이화복씨는 "앞으로 과당 공급이 예상되나 XL파이프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현행 가격대로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P-C파이프는 지난 86년부터 한국 몰티선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 국내에 공급해 왔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주, 대성을 비롯 10여개사가 참여하여 가격경쟁 및 PP-C파이프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PP-C가 온돌용 난방 배관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밑도는 형편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쩍 PP-C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신규업체가 대거 참여해 가격및 품질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PP-C는 1600만M가 생산되었는데 그중 한국몰티선이 90%를 차지, 독보적인 위치를 굳히고 있었으나 올해는 신규업체의 참여로 80% 정도로 줄여잡고 있다고. 한국몰티선 김진국 영업부장은 "PP-C가 그 소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되기도 전에 유망업종으로 부각됨에 따라 많은 중소업체들이 생겨나 과당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하며 첨단소재인 만큼 품질이 중요시 되나 최근 몇몇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몰티선은 플라스틱 소재의 한계인 공기 투과에 따른 산화현상을 막기위해 피복관을 출하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기존 원가에서 1백원 정도 추가 되므로 현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오는 7월부터 30% 정도만 출하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 PP-C의 거래가격은 15㎜ M당 한국몰티선이 550원 선에, 나머지 업체들이 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pp-c가 온돌 난방 배관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밑도는 형편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쩍 pp-c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신규업체가 대거참여해 가격 및 품질경쟁이 예상되고 있다.